



산만한 아이

칭찬과 보상으로 조금씩 집중력을 길러주세요

일단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것을 통해 앉아있는 훈련을 하게 하고 어떤 한가지 과제를 내주어 그것을 시간 안에 끝마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 아이는 해냈다는 성취감과 집중력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적절한 보상'도 아이의 집중력을 높여주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비싼 물건이나 돈을 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좋아하는 간식을 주거나 놀게 하는 등의 방법이 좋습니다.

'칭찬 요법'으로 집중력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산만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는 흔히 아무리 봐도 아이의 행동 중 칭찬할 게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늘 동생과 다투던 아이가 어쩌다 잘 놀아줄 때, 그때를 놓치지 말고 칭찬을 하면 됩니다. 산만한 아이들은 또래 아이들에 비해 칭찬을 적게 받고 야단을 많이 맞는 경향이 있는데 학교와 집에서 이런 대우를 받으면 아이는 '될 대로 되라' 혹은 '나는 본래 그런 아이야'라는 식으로 생각해 더욱 나빠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난폭한 아이

체벌보다는 사랑으로 감싸주세요

특히, 남자아이는 나이가 들수록 힘센 주인공이 나쁜 녀석을 신나게 무찌르는 이야기를 좋아하게 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대부분 전쟁놀이나 전쟁영화를 좋아하게 되지요.

이를 마냥 내버려두면 성격이 비뚤어진 아이로 자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가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면 일단 부모의 육아법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엄하게 교육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때려서 아이를 다스리지는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체벌을 받고 자란 아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극성스러운 아이라도 얼마든지 체벌을 하지 않고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기보다 아이에게 사랑을 듬뿍 주세요.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엄마는 너를 사랑해"라는 말을 자주 해주면 아이는 정말 자신이 사랑 받고 있음을 느끼고 점점 폭력을 휘두르는 일이 사라지게 됩니다.

탈 많은 우리아이 '제대로' 키우기

산만한 아이부터 마마보이까지~

부모넷 www.bomonet.or.kr

독불장군 아이



단지 아들이라는 이유로 응석을 받아주지 마세요

보통 여자아이가 온 집안을 어지르고 뛰어다니면 야단을 치지만 남자 아이는 그냥 두고 엄마가 나중에 치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딸에게는 어릴 때부터 동생을 돌본다거나 엄마 일을 거들게 하면서 아들에게는 손도 까딱하지 않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고집을 받아주다 보면 아이는 점점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남성으로 자라게 됩니다. 거실을 어지럽혔다면 아이가 자신의 손으로 꼭 치우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아이에게 자신만의 나무나 애완동물을 기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물이나 먹이를 주는 등 나무와 동물을 관리하는 일을 스스로 하도록 맡겨봅니다.

늘 보살핌을 받던 입장에서 보살피는 입장으로 바뀌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무뚝뚝한 아이



자연스러운 성장의 단계로 받아들이세요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가 웬지 떨어진 것 같아서 섭섭함을 느끼겠지만 이것도 아이가 정신적으로 자립하기 위한 성장의 단계입니다. 반대로 항상 엄마에게 털어놓고 비밀 하나 없는 아이가 오히려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아이가 주변의 이야기를 그다지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면 캐묻지 말고 그냥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의 엄마에게 묻거나 선생님과 통화를 해서 아이가 어떤 식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아이 쪽에서 먼저 엄마에게 이야기를 해온다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이의 이야기를 우선적으로 들어줍니다. 또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아이를 탓하거나 설교를 하는 것은 절대 피합니다. 일단 아이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아이의 감정에 공감을 하는 자세가 중요 합니다.

마마보이



4세 이후에는 조금씩 엄마와 떨어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살까지는 마음껏 응석을 부려도 괜찮습니다. 남자아이건 여자아이건 친구랑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는 있गे 마련입니다. 자신감이 없어 친구들 사이에 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우선 아이 스스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엄마 품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시간을 갖고 서서히 엄마와 거리를 갖도록 합니다. 처음에는 엄마와 같이 놀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는 식으로 조금씩 거리를 두도록 합니다. **PEEK**